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235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Social Capitals Affecting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정원철*, 박선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Weon-Cheol Jeong(jwc@silla.ac.kr)*, Sun-Hee Park(park_0824@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부산에 소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62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심리적 복지감에서는 공적신뢰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규범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에서는 공적신뢰, 공식적 네트워크, 규범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추후 연구과제와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노인의 사회자본 | 자존감 | 심리적 복지감 | 노인 | 규범 | 네트워크 | 신뢰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capitals and self 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is study took a questionnaire survey to 162 elderly persons over 65 years old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s up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as follows. For the social capitals and self esteem, formal reliability, formal network and the norm, women had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self esteem. For the social capita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mal reliability, women had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the norm had significantly negative (-)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meaning and necessity to construct the social capitals and its activ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Finally, it remarked the limit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direction.

■ keyword : |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 Self-esteem | Psychological Wellbeing | Norm | Network | Reliability |

Ⅰ. 서 론

한국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전체 1위라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성공적 노화연구자들은 노인의 사회적 요소들이 노인의 삶의 질이나 성

접수일자 : 2013년 09월 09일
수정일자 : 2013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0월 18일
교신저자 : 박선희, e-mail : park_0824@hanmail.net

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성분이 된다고 지적하였다[48]. 더 나아가 노인의 사회적 관계나 그와 관련한 역량이나 자산이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40][45].

한편 근래 들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특성으로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부각되고 있다[35]. 사회자본이란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50]. 특히 노인에게 사회자본이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자본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이 용이해질 수 있고, 공동체의 생활조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에 사회자본이 충분한 잠재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50]. 다시 말해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자본은 노인에게는 개인적 이익인 동시에 공적인 이익도 동시에 만족시켜 준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서는 핵가족화, 개인 이기주의의 만연, 연령 계층 간 갈등 등으로 인해 한국의 노인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누리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3].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 비해 고학력과 함께 전문직 직업경험을 보유한 노인들이 꾸준히 노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노인의 네트워크활동 및 사회참여는 사회통합과 발전을 이루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23]. 특히 무엇보다 서구에 비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적 전통과 비공식적인 사회연계망을 존중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자원인 사회자본의 역할이 심리적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노인이 소유한 사회자본을 개발하고 이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를 일찍부터 시작한 서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상당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28].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는 일부의 연구자로부터 노인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를 나열해 보면 노인의 사회자본과 인적, 문화적 자본과의 연관성[8][16][17], 중산층 노인의 사회자본 경험[23], 사회자본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8][17], 사회자본과 신체적 건강[8], 노인의 자원봉사와 직업능력[1][17], 노인의 우울과 흡연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효과[19][21][26]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처럼 노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사회자본이 과연 노인의 심리적 건강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노인의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주목하는 것은 노인의 자존감은 일상의 지각과 자기신뢰, 존재에 대한 수용에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 노년기 심리적 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강력한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16][27], 노인들에서의 심리적 복지감은 정신적 건강상태뿐 만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수준을 측정하는 지표[26]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포함시켰으며, 노인의 사회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및 자아존중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자본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자존감 함양 및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요구되는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사회자본은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개념은 Hanifan[39]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자본'이라는 용어에서 잘 드러나듯이, 자본은 경제학적인 성격을 지닌 용어이다. 생산적 요소에 초점이 주로 주어졌었던 기존의 주류(main stream)경제모델은 복지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

제를 초래하였으며, 더 나아가 경제발달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모델에도 생산의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개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낳았으며, 이는 사회자본의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8]. '사회자본'이 자본으로의 성격이 약하다고 주장하는 Arrow[29]와 Castle[32] 등의 경제학자도 있지만, Coleman[34]과 Putnam[50]의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자본의 개념에도 경제학에서 일컫는 자본의 속성, 이를테면 축적 가능, 경제적 성과의 증진,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능, 전환과 유지 및 보존의 가능 등의 속성이 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 역시 인적, 물적 자본과 같은 형태의 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이 복잡한 만큼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먼저 Bourdieu[30]는 사회자본의 속성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시했으며, 개인이 지닌 사회자본의 규모는 개인 네트워크의 양과 질, 그리고 개인이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정도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그는 규범과 정보의 흐름이야말로 네트워크가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Coleman[35]은 사회자본이란 개인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 형태 즉, 신뢰에 바탕을 둔 호혜성, 규범, 정보의 통로로 구체화 된다고 보았다. Bourdieu[30] 역시 Coleman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정 조직의 멤버십(membership)'을 사회자본의 예로 제시하였다. 사회자본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Coleman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자본 역시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자본이지만, 사회자본의 속성은 특히 인간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Fukuyama[37]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뢰(reliability)를 사회자본의 중요 요소로 보았다. 그는 상호신뢰는 사회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자 개인들 간의 협력을 유발하며, 대인 간 교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사람과 제도나 조직 등을 신뢰하는 정도(most people can be trusted)'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이 측정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 외에도 협력, 의사소통 등의 개념도 사회자본으로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의 개념은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실체와 기능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에 대해 학자들은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 간의 협력과 사회관계를 조장하는 '규범'과 '신뢰' 및 '네트워크'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개인이 자신의 행동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관계 구조 내에 내재하는 자원으로 노인의 사회자본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지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의 이익을 조종하고 극대화하는데 투여하는 규범이나 네트워크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토대로 상호 간의 효혜성에 토대하는 신뢰의 수준이 노인의 삶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신뢰(공적, 사적), 네트워크(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사회자본의 주요개념으로 설정하고, 노인의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연관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사회자본과 노인의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

자아존중감은 자신감이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인식의 객관적 변화, 환경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심리적 건강의 기초가 될 뿐 만 아니라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된다[27]. 특히 노년기에는 상대적으로 감각적, 인지적, 사회적 상실이 커짐에 따라 자존감이 점차 감소되며[46], 자존감이 낮은 노인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며, 외적 결핍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크며[3],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4].

심리적 복지감이란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물리적 복지와 함께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10][25]. 심리적 건강의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심리적 복지감은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안녕감을 감정과 사회, 인지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다면적 개념이다[7].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노령일수록 낮아지며[12], 낮은 교육수준일수록[2][24], 종교활동에 참여할수록[13][18], 건강상태[12][18]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5]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1세기 들어 사회자본의 기전(mechanisms)이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Kessler[43]은 심리적 건강과 사회자본의 연관성에 대해 '주효과모델(main effect model)'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주효과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삶에 이로운 규범을 수용하게 되고, 사회환경에 대한 신뢰의 증가는 소속감의 증가와 주변 환경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여줄 뿐 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로운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낳게 함으로써 심리 정서적으로 이로운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Arrow[29]은 사회자본이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구조적 양상(structural aspect)과 인지적 양상(cognitive aspect)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자본의 구조적 양상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이나 공식적, 비공식 조직의 참여자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에게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에서 유발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반면에 신뢰, 지지, 공유된 규범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인지적 양상은 개인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자본과 심리적 건강과의 연관성을 직접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Rose[49]는 사회자본은 러시아인 정신건강의 약 10%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고, Kawachi[42]는 사회자본이 큰 대학캠퍼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학캠퍼스에 비해 폭음율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자본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기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심리적 건강과 사회자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 근래 들어 사회자본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탐색적 수준에서나마 일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테면 사회자본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1][20]와 중고령 노인의 신체적 건강이 사회자본과 연관된다는 연구[18]가 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 일부에서 노인의 사회자본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상당부분이 탐색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자본이 노인의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하고자 부산지역을 동, 서, 남, 북, 중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소재 5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허락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조사자가 노인임을 감안하여 집단조사방식을 통해 조사자가 직접 한 문항 씩 질문지를 읽어줌으로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2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200부였으나, 불성실하거나 응답내용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48]가 제작한 SSEI(self -esteem inventory)를 [22]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81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은 [44]가 개발하고, [33]이 번역한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의 측정문항은 총 6개이며, 각 문항은' 5점으로 하는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1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사회자본

(1) 신뢰

신뢰에 관한 질문지는 임우석[20]이 고안한 질문지를 토대로 하였는데, 사적신뢰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낯선 사람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고 '전적으로 믿는다' 5점에서 '전혀 믿지 않는다' 1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문항). 공적신뢰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기관인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중앙정부, 부산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경찰,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 5점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1문항). 원척도의 사적신뢰에 대한 Cronbach's Alpha=.710이었고, 공적신뢰에 대한 Cronbach's Alpha=.8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사적신뢰에 대한 Cronbach's Alpha=.689, 공적신뢰에 대한 Cronbach's Alpha=.797로 나타났다.

(2) 네트워크

임우석[20]이 고안한 질문지를 토대로 공식적 네트워크, 사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는데, 사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자녀 수, 형제자매 수, 월평균 자녀와의 접촉빈도, 음식을 나누거나 간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수, 위험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공식적 네트워크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자선・봉사모임이나 단체, 종교단체, 친목・취미 모임이나 단체, 시민단체 등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의 수를 묻는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Cronbach's Alpha=.5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626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 네트워크는 한 개의 문항이므로 신뢰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규범

[20]이 고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차례 지키기, 교통질서, 공공장소 금연 등과 같은 규범 및 규칙준수 정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정도, 범법자나 위험요소 발견 시 신고 정도의 3개 문항을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원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5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ach's Alpha=.646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2][3][12][18]를 토대로 하여 성,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생활수준이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학력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4가지로 범주화하였으며, 배우자 유무는 '있다' '없다'의 2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생활수준은 '상', '중', '하',로 범주화하였다. 이 중 '성별', '배우자 유무'는 더미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기준변수로 하였으며, 배우자는 '있음'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8.0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stepwi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지 중 최종적으로 162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자가 63명(38.9%), 여자가 99명(61.1%)으로 여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 구성은 70세에서 75세 미만이 66명(40.7%), 75세에서 80세 미만이 49명(30.3%)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70세에서 80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초졸 이하가 61명(37.7%), 중졸 42명(25.9%), 고졸 42명(25.9%)으로 대졸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1명(62.7%), '없음'이 62명(37.3%)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에 대해 '중'으로 응답한 사람은 100명(61.8%), '하'로 응답한 사람은 60명(37.0%)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생활수준이 보통이나 그 이하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3	38.9
	여	99	61.1
연령	65세 이상 70세 미만	31	19.1
	70세 이상 75세 미만	66	40.7
	75세 이상 80세 미만	49	30.3
	80세 이상	16	9.9
학력	초졸 이하	61	37.7
	중졸	42	25.9
	고졸	42	25.9
	대졸 이상	17	10.5
배우자 유무	있음	101	62.7
	없음	62	37.3
생활수준	상	2	1.2
	중	100	61.8
	하	60	37.0
전체	-	162	100.0

2. 관련 변인의 기술통계

1) 사회자본의 기술통계

사회자본의 하위영역 중 사적신뢰의 평균은 5점 척도에 3.68(±.60)로 나타났으며, 공적신뢰는 3.05(±.64), 규범은 4.27(±.70)로 나타났다. 한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위해, 자녀와 형제자매, 이웃 간의 교류 건수를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값 12.50, 최소값 .00, 평균값 2.40(±1.86)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네트워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고 있는 종친회, 동창회 등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의 수에 대해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값 15.00, 최소값 .00, 평균값 3.27(±2.43)로 나타났다.

표 4-2. 사회자본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자본	사적신뢰	162	1.00	5.0	3.68	.600
	공적신뢰	162	1.45	5.0	3.05	.640
	비공식적 네트워크	162	.00	12.50	2.40	1.863
	공식적 네트워크	162	.00	15.00	3.27	2.425
	규범	162	1.00	5.0	4.27	.698

2)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의 기술통계

심리적 복지감의 평균은 5점 척도에 3.46(±.74)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3.48(±.60), 고독감은 2.15(±.6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심리적 복지감과 자아존중감의 평균 수준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3.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의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복지감	162	1.50	4.83	3.46	.736
자아존중감	162	1.63	5.00	3.48	.601

3. 관련변인 간의 상관분석

[표 4-4]은 사회자본과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먼저 사적신뢰는 자아존중감(r=.300)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며, 공적신뢰는 자아존중감(r=.138)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심리적 건강의 각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식적 네트워크는 심리적 복지감(r=.258)과 자아존중감(r=.11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고, 끝으로 규범은 심리적 복지감(r=.117)과 자아존중감(r=.37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4. 사회자본과 심리적 건강의 상관관계

사회자본	사적신뢰	공적신뢰	비공식적 네트워크	공식적 네트워크	규범
심리적 복지감	.165	.125	.023	.258**	.117*
자아존중감	.300*	.138*	.027	.111*	.375**

*p< .05, **p< .01

4.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1) 노인의 사회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 중 공적신뢰가 심리적 복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t=4.107, p<0.001), 규범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t=-1.999, p<0.05)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며, 규범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사적신뢰, 공적, 사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 사회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1단계			2단계			공선성	
		B	β	t	B	β	t	공차한계	VIF
상수		2.772		5.168***	2.225		2.366*		
통제변수	성별1(남자)	-.665	-.299	-3.117**	-.649	-.292	-3.128**	.700	1.428
	연령	.001	.073	.876	.002	.137	1.702	.940	1.064
	학력	.157	.147	1.069	.150	.140	1.407	.614	1.629
	배우자1(유)	.086	.038	.402	-.117	-.051	-.549	.707	1.415
	생활수준	.097	.046	.525	.020	.010	.107	.755	1.325
독립변수	사적신뢰				.015	.012	.133	.795	1.258
	공적신뢰				.442	.346	4.107***	.861	1.161
	비공식적 네트워크				.053	.079	.915	.812	1.231
	공식적 네트워크				.058	.122	1.338	.735	1.360
	규범				-.259	-.164	-1.999*	.905	1.105
R^2		.096			.238				
R^2 변화량		.096*			.142***				
F		2.827*			3.605***				

*p< .05, **p< .01, ***p< .001

2)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 중 공적신뢰(t=2.557, p<0.05), 공식적 네트워크(t=2.129, p<0.05), 규범(t=3.891, p<0.001)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규범의 방향이다. 종속변수가 심리적 복지감일 때는 부(-)적 방향이었으나 종속변수가 자아존중감일 때는 정(+)적 방향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규범이라는 사회적 틀이 개인 삶의 틀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는 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심리적 복지감에는 부(-)영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규범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복지감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단계			2단계			공선성	
		B	β	t	B	β	t	공차한계	VIF
상수		4.912		8.711***	.744		.737		
통제변수	성별1(남자)	-.673	-.279	-2.982**	-.530	-.220	-2.559*	.688	1.453
	연령	-8.09	.000	-.001	.000	.023	.307	.926	1.080
	학력	-.078	-.068	-.756	-.086	-.074	-.867	.691	1.447
	배우자1(유)	.011	.004	.049	-.015	-.006	-.072	.722	1.385
	생활수준	.321	.139	1.636	.046	.020	.239	.733	1.364
독립변수	사적신뢰				.115	.054	685	.831	1.203
	공적신뢰				.233	.219	2.557*	.704	1.421
	비공식적 네트워크				.052	.074	.937	.822	1.217
	공식적 네트워크				.089	.185	2.129*	.672	1.489
	규범				.504	.299	3.891***	.863	1.159
R^2		.129			.339				
R^2 변화량		.129**			.210***				
F		4.039**			6.058***				

*p< .05, **p< .01, ***p<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의 사회자본이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심리적 복지감에서는 공적신뢰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규범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볼 때, 공적신뢰, 공식적 네트워크, 규범이 자아

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자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신뢰와 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다. 먼저 공적신뢰란 중앙 및 지방정부, 교육기관, 언론 등의 사회적 안녕과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긍정의 믿음을 의미하는데,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는 가족이나 친지 등의 사적인 수준에서의 신뢰보다 공적인 부분에 의해 심리적 복지감이 더 많이 좌우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홍직[19]의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이 양호하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표 4-2]에서 뿐만 아니라 유홍준 외[14]의 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사회는 공적신뢰보다 사적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사적신뢰 보다는 공적신뢰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적신뢰와 심리적 건강 간의 연관성을 살피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규범을 낮게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석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규범이란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내재화한 규준으로서 관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노인의 내적인 규범이 높을수록 관계에서의 내적규제가 더 많이 작동할 가능성이 큰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깊이 있는 논의는 후속연구의 지속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사회자본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적신뢰와 공식적 네트워크, 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공적신뢰가 클수록 자아존중감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신뢰란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의 질과 내용에 따라 형성되며[31], 다양한 심리 수준 특히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이나 환경을 신뢰하는 수준과 범위도 증가한다는 Moen[45]의 주장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본 연구결과는 공적 조직에 참여 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는 이경제와 남궁선[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일반 노인들에게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역할을, 그리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결핍된 노인에게는 양질의 네트워크로 기능하면서 노인의 심리적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규범과 자아존중감과의 연관성을 보면, 규범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 차단과 집단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며, 사회적 지원에 의해 강화되는 특성을 가진다[34]고 볼 때, 규범의 준수를 통해 개인들은 자기신뢰나 자기만족감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측면은 규범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범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자본 중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자존감과 심리적 복지감 어디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한국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중심적인 사회관계망이 두텁고, 가족 및 친지 등이 핵심적인 지지망으로 기능한다[6]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화와 일차집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동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거점역할을 한 결과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입증된 결과[9]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사회복지관이라는 공식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노인에 한정된 점도 이러한 결과 도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심리적 건강의 증진에 공식적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빈곤층이나 소외계층 노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6],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 네트워크의 강화는 부실한 사적 네트워크를 보완해 줌으로써 노인의 삶과 심리적 건강유지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노인의 사회자본과 자존감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연관성을 경험적으로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지만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표집방법이 무작위 표집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대상이 모든 노인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을 대표하는 표집을 통해 사회자본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심리적 건강과 관련시키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측정도구가 부재한 탓에 일반인의 사회자본 측정도구를 노인에게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자본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요소들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기영화, 김남숙, “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자본화 이론모델 정립 현장사례연구: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교육학회, 제30권, 제3호, pp.25-48, 2011.

[2] 김기태, 박봉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제20권, 제1호, pp.153-168, 2000.

[3] 김애련,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4] 김영숙,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 제9권, 제1호, pp.115-137, 2003.

[5] 김태현, 한은주,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 제9권, 제3호, pp.81-106, 2004.

[6] 박미진, 노인의 우울과 지지네트워크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사업, 제40권, 제1호, pp.207-233, 2012.

[7] 백경숙, 권용신, “재가복지서비스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제46권, pp.337-356, 2007.

[8] 서지원, “중고령기 건강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10호, pp.133-144, 2006.

[9] 서홍란, 김희년, “요보호여성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제35권, pp.176-202, 2010.

[10] 손덕순, *노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1] 신상식, 최수일,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한국호텔관광학회, 제38권, pp.173-189, 2010.

[12] 옥진미, *독거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3] 유광수, 박현선,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3권, 제4호, pp.163-179, 2003.

[14] 유홍준, 홍훈식, “집단참여가 사적 공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 사회과학, 제42권, 제2호, pp.55-77, 2009.

[15] 이경재, 남궁선,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역 노인여가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

회, 제53권, pp.49-70, 2009

[16] 성기월, "노인의 인지기능, 자아존중감과 우울정도", 한국간호과학회, 제27권, 제1호, pp.36-48, 1997.

[17] 이현기, "노년기 생활환경과 중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현금기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4호, pp.305-329, 2010.

[18] 이혜경,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제46권, pp.315-336, 2009.

[19] 이홍직,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3호, pp.25-42, 2009.

[20] 임우석, *사회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1] 임재영, 조창익, "한국 노인의 흡연 및 음주행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pp.73-92, 2008.

[22]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권, 제1호, pp.107-130, 1974.

[23] 정순둘, 이현주, 최혜지, 김고은, 이소영, "한국 중산층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자본 경험과 의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7권, 제1호, pp.221-259, 2012.

[24]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제20권, 제2호, pp.49-70, 2000.

[25] 진미정,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6] 전지원, 박미석,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한국노년학, 제26권, 제3호, pp.521-545, 2006.

[27] 최영애, "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일부 지역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제23권, 제3호, pp.129-142, 2003.

[28] H. Bhandari and K. Yasunobu, "What is social capital?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cep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7, pp.480-510, 2009.

[29] K. Arrow, "Observations on Social Capita" in Dasgupta, P. and Serageldin, I.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0.

[30] P. Bourdieu,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31] R. C. Brown and S. Lindskold, "Correlations between trust, self-esteem, sociometric choice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Psychological Reports*, Vol.32, No.1, pp.739-743, 1973.

[32] E. N. Castle, "Social Capital: An Interdisciplinary Concept," *Rural Sociology*, Vol.67, pp.331-349, 2002.

[33] H. K. Choi, "The process of caregiving stress among Korean caregivers for elderly," Cornell Univer. Graduate School A thesis for doctorate, 1992.

[34] J.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G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94-121, 1988.

[35] J. Coleman,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36]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1976.

[37] F. Fukuyama,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38] T. Hamano, M, Yamasaki, Y. Fujisawa, K. Ito, T. Navika, and K. Shiwaku,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elderly in Japanese rural communities," Stress and Health, Vol.27, No.1, pp.163-169, 2011.

[39] L. J. Hanifan,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Annu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67, pp.130-138, 1916.

[40] J. S. House and R. L. Kahn,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and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Y: Academic Press, 1985.

[41] E. R. Weitzman and I. Kawachi, "iving Means Receiving: The Protectiv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Binge Drinking on College Campus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0, pp.1936-1939, 2000.

[42] I. Kawachi and L. F. Berkman,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Vol.78, No.3, pp.458-467, 2001.

[43] R. C. Kessler and J. D. McLeo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Community Samples," in Cohen, Sheldon and Syme, S. Leonard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1985.

[44] B. McWhirter, "Loneliness, learned resourcefulness,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75, pp.460-468, 1997.

[45] P. Moen, D. Dempster-McClain, Jr. and R. M. Williams, "Social integration and longevity: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women's roles and resili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4, pp.633-647, 1989.

[46] U. Orth and K. H. Trzesniewski,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8, No.4, pp.645-658, 2010.

[47]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65.

[48]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8.

[49] R. Rose, "How much dose social capital add to individual health? A survey study of russian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51, No.9, pp.1421-1435.

[50] R.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저 자 소 개

정 원 철(Weon-Cheol Jeong) 정회원

- 2002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심리상담, 교류분석

박 선 희(Sun-Hee Park) 정회원

- 2012년 8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석사)
- 2012년 9월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외래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정신보건, 심리상담